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비지출(SOCX)의 장기전망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보험급여의 GDP대비 비중은 2010년 3.76%에서 2015년 5.15%, 2020년 6.27%, 2030년 8.27% 등으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증가속도는 국민연금이 2030년에 2011년 대비 9.3배, 노인장기요양이 6.3배, 그리고 건강보험급여비가 5.9배 증가함

- 건강보험급여비는 2030년에 198조 6,460억원, 2050년에는 404조 7,410억원으로 사회보험중 가장 지출규모가 큼

1. 공공사회복지비지출 구성항목

- OECD SOCX는 5개의 유형별 지출지표(공공사회복지지출, 민간사회복지지출, 사회복지지출, 총사회복지지출, 순사회복지지출)와 9개의 기능별 지출지표(노령, 유족,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실업, 주거, 기타)를 생산하고 있음
 - SOCX통계 중에서 국가예산상의 복지비지출과 가장 유사한 기준은 일반정부지출과 사회보험급여만을 포함하는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임
-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SOCX)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을 추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보사연의 공공사회복지지출비의 추계는
 - 중앙부처의 복지관련 예산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주요세출예산만을 포함하고 이들 항목에 대해 지방정부가 Matching형식으로 지방재정으로 충당하는 지출을 포함하였음
 - 사회보험영역은 4대 사회보험과 3개 직역연금, 노인장기요양급여비를 포함함

〈표 1〉 보사연 사회복지지출장기추계의 범위

부문		내용
세입세출예산부문	보건복지부 세출예산 중 주요 급여 및 서비스 항목	기초생활보장의 4개 급여
		장애인 관련 수당 및 연금
		보육료지원 및 보육서비스
		기초노령연금, 노인돌봄서비스
	지방재정 복지지출	국고지원금을 제외한 보건복지부 소관 지방재정복지지출비
사회보험부문	4대 사회보험급여 + 노인장기요양급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노인장기요양급여
	3개 공적직역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 본 연구에서 장기추계의 대상으로 포함시킨 항목들의 지출액을 합계하면 2009년도 기준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비의 77%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2〉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비와 보사연-복지지출비추계

(단위: 억원)

연도	OECD SOCX 공공사회복지지출비 (A)	보사연 장기추계대상 사회복지지출비 (B)	B/A (%)
2005	558,880	447,623	80.09
2006	670,920	513,446	76.52
2007	739,590	586,590	79.31
2008	855,690	675,276	78.90
2009	1,017,800	790,791	77.60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가 아직 성숙단계가 아니고 건강보험급여 또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보사연의 추계항목은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비의 100%에 근접하는 수준이 될 것임

2.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사회복지지출비 장기전망

□ 보건복지부의 세출예산 중 추계대상에 포함되는 항목은 주요 급여성 성격의 지출만을 포함

- 보건복지부 세입세출예산 중에서 보사연-사회복지지출장기추계 범위에 포함되는 항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 3〉과 같음
- 추계에 포함되는 세출예산은 2011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총세출예산의 85.48%인 17조 6,894억원으로 분석됨
 - 생계급여, 연금, 수당, 기초노령연금 등과 같은 현물급여(32%)와 의료급여, 각종 보육료지원, 장기요양보험지원, 건강보험지원, 돌봄서비스와 같은 현물급여 또는 서비스급여(68%) 등이 추계대상에 포함됨
 - 또한 이들 항목은 인구구조변화와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장기재정추계에 포함시켜 장기적 추이를 관찰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음

〈표 3〉 보사연 사회복지지출 장기추계에 포함되는 세출항목

(단위: 억원)

부문	2011년 세입세출 예산총액(A)	장기추계대상 예산항목(B)	비중(%) B/A
기초생활보장	75,167	72,672	91.09
생계급여		24,460	
주거급여		5,987	
교육급여		1,299	
의료급여		36,724	
자활사업		4,202	
아동·장애인 등	10,460	3,902	37.3
장애인연금		2,887	
장애수당		1,015	
보육 및 저출산	25,107	24,194	96.36
영유아보육료 지원		19,346	
보육돌봄 서비스		3,950	
보육시설미이용아동양육 지원		898	
노인	37,145	33,858	91.15
기초노령연금		28,253	
노인돌봄서비스		1,002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		4,603	
건강보험	46,471	40,797	99.99
건강보험지원		40,797	
기타예산항목	12,571		
합계	206,921	175,423	84.7

- 장기지출추계에 포함되는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자격급여(서비스)는 아래 〈표 4〉와 같음
- 보건복지부의 주요자격급여(총세입세출예산의 84%)의 장기지출전망은 인구가정1 (통계청 중위가정: TFR 1.28)을 기준으로 추계되었음
 - 2015년에 주요자격급여의 지출규모는 27조 8,597억원(2011년 대비 59.5%상승)이 될 것으로 전망됨(연 평균 14.8%증가)
 - 이에 대응하는 지방비지출은 7조 7,386억원으로(2011년 대비 45.2%)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지방정부는 자체예산을 통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소관 복지사업 이외에도 타 부처의 복지사업에 대해 Matching하고, 또한 독자적인 복지사업을 수행하기도 함

○ 본 연구는 장기추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추계의 단순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소관 지방재정에 의한 복지지출만을 추계의 대상으로 함

〈표 4〉 지방정부의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세출예산

(단위: 백만원)

현금 및 서비스급여부문		2008년	2009년	2010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635,609	699,211	637,376
	주거급여	167,349	185,346	158,960
	교육급여	30,064	37,384	31,334
	의료급여	1,203,004	1,107,030	1,102,484
아동·장애인 등	장애인연금	-	-	73,275
	장애수당	171,481	150,868	98,238
보육 및 저출산	영유아보육료지원	874,865	1,387,072	1,712,876
	보육돌봄서비스	358,984	413,199	417,348
	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	-	36,412	71,100
노인	기초노령연금	618,630	944,746	990,840
	노인돌봄서비스	12,585	21,922	35,483
	노인장기요양	257,812	635,156	707,063
합계		4,330,386	5,618,350	6,036,379

○ 2009년도 지방재정의 사회복지분야 최종예산은 29조 1,600억원¹⁾이고, 보건복지부 소관 복지지출예산은 5조 6,183억원으로 약 19%를 차지함

□ 보건복지부 소관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SOCX)규모는 〈표 5〉와 같이 추계됨

○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사회복지지출규모는 116조 9,070천억원(GDP대비 7.35%)으로 전망됨

○ 2025년에 10.03%로 절대액 규모로는 2011년 대비 4.1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1) 「복지재정운영실태와 정책과제」, 국회예산정책처, 2010

〈표 5〉 보건복지부소관 공공사회복지지출비 장기전망

(단위: 10억원)

연도	국고+지방비 +사회보험(A)	사회보험 국비지원(B)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사회복지지출비 (SOCX)(C)	GDP (D)	GDP대비비중 C/D
2011	71,290	4,467	66,823	1,172,803	5.70%
2015	124,725	7,818	116,907	1,590,977	7.35%
2020	200,318	1,760	187,558	2,179,777	8.60%
2025	294,889	18,371	276,519	2,755,615	10.03%
2030	411,742	24,999	386,743	3,483,573	11.10%
2035	537,942	31,205	506,737	4,177,521	12.13%
2040	700,141	38,209	661,932	5,009,708	13.21%
2045	871,784	44,868	826,916	5,864,229	14.10%
2050	1,062,177	51,757	1,010,420	6,864,508	14.72%

자료: 2011년도 사회보험급여는 2010년도 실적이 사용되었음

- 보건복지부 소관 3대 사회보험의 급여비지출규모를 추계한 결과는 아래 〈표 6〉와 같음
- 2015년 국민연금급여지출액은 14조 8,290억원, 노인장기요양 4조 810억원, 그리고 건강보험급여지출액이 82조 1,550억원으로 전망됨
- 2015년 3대 사회보험급여비지출규모는 GDP대비 5.16%를 차지하나, 2030년에는 9.05%, 2045년에는 10.6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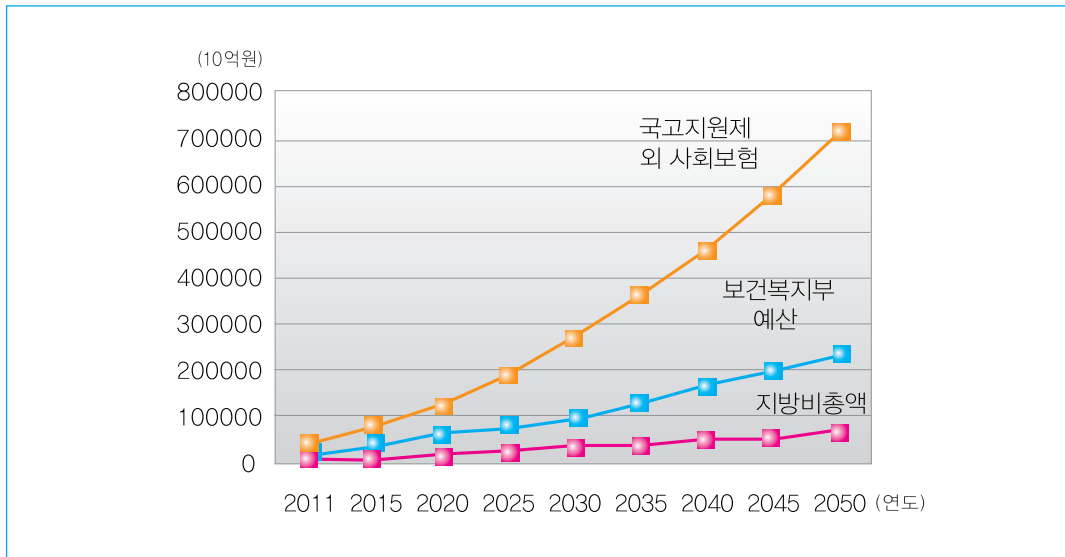
〈표 6〉 보건복지부소관 사회보험급여지출비 장기전망

(단위: 10억원, %)

연도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건강보험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보험합계(A)	GDP(B)	GDP대비비중 A/B
2010	7,870	2,571	33,683	44,124	1,172,803	3.76
2015	14,829	4,081	63,245	82,155	1,590,977	5.16
2020	26,888	6,551	103,336	136,775	2,179,777	6.27
2025	46,793	10,741	147,333	204,867	2,755,615	7.43
2030	73,255	16,275	198,646	288,176	3,483,573	8.27
2035	110,116	21,869	246,236	378,221	4,177,521	9.05
2040	169,042	27,866	300,296	497,204	5,009,708	9.92
2045	239,040	33,899	351,326	624,265	5,864,229	10.64
2050	321,820	39,579	404,741	766,140	6,864,508	11.16

자료: 2011년도 사회보험급여는 2010년도 실적이 사용되었음

[그림 1] 보건복지부 소관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비(SOCX)규모의 장기추이



3.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비(SOCX)의 장기전망

□ 고용보험, 산재보험, 공적직역연금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비(SOCX)의 장기전망결과

- 2011년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비는 86조 4,820억원이며 GDP대비 7.37%로 계산됨
- 2020년에는 236조 7,980억원으로 GDP대비 10.86%로 증가하다가 2030년에는 GDP대비 13.63%, 2050년에는 GDP대비 17.5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7〉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비 장기전망

(단위: 10억원)

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사회복지지출비 (A)	고용보험+ 산재보험급여 (B)	공적직역연금급여 (C)	공공사회복지지출 D=A+B+C	GDP (E)	GDP대비비중 D/E
2011	66,823	7,579	12,080	86,482	1,172,803	7.37%
2015	116,907	17,018	18,579	152,504	1,590,977	9.59%
2020	187,558	19,824	29,416	236,798	2,179,777	10.86%
2025	276,519	21,991	44,103	342,613	2,755,615	12.43%
2030	386,743	24,109	63,921	474,773	3,483,573	13.63%
2035	506,737	25,950	86,129	618,816	4,177,521	14.81%
2040	661,932	27,835	111,001	800,768	5,009,708	15.98%
2045	826,916	30,318	134,725	991,959	5,864,229	16.92%
2050	1,010,420	33,134	160,161	1,203,715	6,864,508	17.54%

- 분야별 구성비는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사회복지지출비가 2011년 77.27%로 가장 높고, 2050년에 83.94%로 그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출산력 1.28을 적용하는 경우 급여비지출의 증가 속도가 다른 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비중도 2011년 8.76%에서 2050년에는 2.75%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표 8〉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비의 구성비

(단위: %)

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사회복지지출비 (A)	고용보험+산재보험급여 (B)	공적직역연금급여 (C)	A+B+C
2011	77.27	8.76	13.97	100
2015	76.66	11.16	12.18	100
2020	79.21	8.37	12.42	100
2025	80.71	6.42	12.87	100
2030	81.46	5.08	13.46	100
2035	81.89	4.19	13.92	100
2040	82.66	3.48	13.86	100
2045	83.36	3.06	13.58	100
2050	83.94	2.75	13.31	100

- 분야별 공공사회복지지출비의 연평균성장률은 2011-2015년 연평균증가율은 고용보험+산재보험급여비가 가장 높으나, 2025-2030년 기간에는 공적직역연금급여지출의 증가율이 6.2%로 가장 높고 2045-2050년 기간에는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사회복지지출비의 증가율이 3.63%로 가장 높음

〈표 9〉 분야별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비의 연평균증가율

(단위: %)

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사회복지지출비	고용보험+산재보험급여	공적직역연금급여
2011-2015	8.57	11.09	7.00
2016-2020	7.53	2.83	7.37
2021-2025	6.43	1.97	6.66
2026-2030	5.70	1.76	6.20
2031-2035	4.74	1.42	5.16
2036-2040	4.69	1.35	4.48
2041-2045	3.99	1.64	3.52
2046-2050	3.63	1.70	3.18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추계에 의하면 국민연금제도의 성숙화,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의 급증이 예상됨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보험급여의 GDP대비비중은 2010년 3.76%에서 2015년 5.15%, 2020년 6.27%, 2030년 8.27% 등으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2015년 기준 보건복지부 예산총액과 지방비부담총액을 합친금액은 42조 5,693억원이나 건강보험급여비지출은 동년도 63조 2,450억원으로 지출을 급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증가속도는 국민연금이 2030년에 2011년 대비 9.3배, 노인장기요양이 6.3배, 그리고 건강보험급여비가 5.9배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낮으나 이미 절대액이 커, 2030년 급여비는 198조 6,460억원, 2050년에는 404조 7,410억원으로 사회보험중 가장 지출규모가 큼
- 2010년 노인인구는 560만명에서 2020년 847만명(1.51배 증가), 2030년 1,302만명(2.3배 증가), 2050년 1,754만명(3.12배 증가)으로 급증하여 자격성급여 및 서비스지출의 급증 원인이 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의 거의 대부분이 인구고령화와 관련된 급여 및 서비스로 인구고령화의 효과가 보건복지부세출예산을 포함한 사회복지지출전반에 크게 작용하고 있음

원종욱(사회보험연구실 연구위원)

문의(02-380-8227)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public_01_01.jsp